전북도, 설 명절 '4+ 민생경제 특별대책'

방역 · 경제살리기에 3186억원 규모 5개 분야 27개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민생안정 도모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전환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4+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3,186억원 규모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경제 분야 4대 명절대책으로 ▲자금지원 9개 사업 270억원 ▲판매지원 2개 사업 1억원 ▲소비지원 4개 사업 2,600억원 ▲물가안정 2개 사업이 추진되며, ▲10개 315억원의 재정사업을 2월까지 신속히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상생협력 협약보증 4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는 ▲저소득 · 저신용 특례보증 50억원 ▲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 · 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40억원 ▲전주시 고용유지 특례보증 10억원 ▲햇살론 10억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특례보증 10억원이 지원되며,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집중관리 및 지급유도를 위해 임금체불 단속계도와 홍보가 전개된다.

또한, 판매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몰, 위메프 등 지역 우수상품 온라인 마케팅에 374개 업체가 참여하며, 1억원의 예산으로 할인액을 지원한다.

백화점 우수상품관 선물전에도 112개사가 참여한다.

더불어, 소비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특별지원 ▲지역사랑상품권 2,300억원 집중 발행 ▲16개 전통시장 상시주차 허용구역 및 황등시장 한시허용 홍보 ▲코로나 안심 장보기 환경이 제공된다.

특히, 안심 장보기 환경조성을 위해 76개 전통시장 · 상점가에 소독약 87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오는 10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해 백화점 · 대형마트 등 15개 대형판매점의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관리 대상인 직접판매 홍보관 등 방문판매업 901개소의 점검도 지속해 방역 강화에 힘쓴다.

아울러,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책임관을 지정하고, 안정대책반을 가동해 16개 성수품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행위 집중점검을 위해 원산지 · 가격표시,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 상거래 저울 특별점검 및 부정 석유류 단속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기존 4개 명절대책 외에도 정부자금이 지역경제 주체에 설 명절 전 전달되도록 275억원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원,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5억원, 폐업지원 4억원,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10억원, 벤처펀드 7억원 등 10개 사업을 2월까지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설 명절 4+ 특별대책 외에도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8만8,703명에게 1,157억원이 지급 완료돼 명절까지 지역에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농축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전북도, 지난해 수출액 4억9만 달러… 4년 만에 2배 성장

지난해 전북도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억9만 달러로 역대 최고의 수출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억 달러 규모의 농축수산식품을 수출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2배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수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로 그 의미가 있다.

품목별로 가공농식품(23.9% 증)과 축산물(21.6% 증)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가정 편의식품인 면류(라면, 만두류 등)의 수출이 1억300만 달러(40.9% 증)를 기록해 수출금액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김제에 투자한 다국적 반려동물 사료 생산기업인 A사를 중심으로 한 사료가 꾸준한 수출 증가로 5,500만 달러(108.1% 증)의 수출금액 2위를 기록했다.

수산물은 조미김(4,500만 달러, 12.3% 감)과 마른김(3,800만 달러, 33.5% 감)의 수출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도내 전체 수출의 23.6%인 9,500만 달러 가량을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축산물은 닭고기가 전년보다 34%가량 증가한 2,500만 달러를 기록,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가별 수출 상황은 중국 수출(9,500만 달러, 4.0% 감)이 2년 연속 수출국 1위의 자리를 지켰으며, 사료와 면류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일본(6,300만 달러, 3.5% 증)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태국이 마른김의 수출 감소에도 반려동물 사료, 면류의 수출 증가로 3위를 유지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한 해 도내 농식품 수출이 4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수출에 매진해 준 도내 농수산식품 생산 및 수출 업체들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시장개척 분야와 신남방 · 신북방까지 신규시장을 넓혀 나아갈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설 대비 여객선터미널 생활방역 수칙 홍보 · 점검 강화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안여객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와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설을 앞두고 연안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도민과 귀성객,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수칙 안내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 개찰구 및 화장실 다중이용시설 소독강화 등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점한다.

특히, 연안여객선 대합실이나 객실과 같은 공동이용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과 1~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선상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모두 2,470명, 하루평균 494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항 횟수를 늘려 이용객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청,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조합, 해양경찰서, 여객선사 등은 설 연휴 기간에 특별수송대책반 구성 및 비상 대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청에서 열린 1970년대 전주지역 과거사 진실규명 기자회견' 고(故) 한종호, 한보만 형제의 유가족(왼쪽)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가 2일 전주시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1970년대 전주지역 과거사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비대면 화상상담 확대

전북도, 도내 모든 확진자 · 자가격리자 대상 운영

전북도가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위한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2일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 대상에서 도내 모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대상군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화상 심리지원 서비스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격리 및 치료에 대한 불안 · 우울감 등에 대한 전문적 개입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원하는 상담일 전날 오후 2시~5시까지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063-251-06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전북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세정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 23명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으로 구성됐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임기인 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을 심의 · 의결하게 된다.

지난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포함해 체납자 정보공개 등 총 114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 · 의결 건을 처리한 바 있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항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737건(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만1,194.77ha(평균 1,119ha)가 잿더미로 변했다.

봄철에 산불이 집중 발생(전체 67%)하고, 3월에 최대 발생하는 추세이다.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34%, 평균 159건)와 소각산불(29%, 137건)이 전체 원인의 63%를 차지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초대형헬기(S-64) 1대와 대형헬기(KA-32)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도 12개 시 · 군, 충청남도 2개 시 · 군을 관할권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고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